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omantic Competence

김경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활과학과

Kyoung-Mi Kim(pink7423@korea.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인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이 모두 낮은 안정애착유형일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의 수준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았고, 연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연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착과 같은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연인관계 유능성과 같은 관계기술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계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낭만적 애착 | 연인관계 유능성 | 심리적 안녕감 | 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romantic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sample of 206 college students was employ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omantic attach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omantic competence. Also, romantic compete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re was partial mediating effect of romantic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romantic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explored the direct effect of romantic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ndirect effect of romantic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romantic competence. The results imply that personal relationship skills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planning programs o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 keyword : | Romantic Attachment | Romantic Competence | Psychological Well-being | College Student |

I. 서론

청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묘사된다. 질풍노도(疾風怒濤)란, 빠를 질(疾), 바람 풍(風), 성낼 노(怒), 큰 물결 도(濤)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을 뜻하는 용어로[1] 청년기의 격동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된다. 즉, 청년은 아동도 성인도 아닌 주변인의 상태에서 급격한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정서적인 동요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청년,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지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치열한 학점 관리, 부담스러운 학자금, 갈수록 심화되는 고용대란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의 집단보다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2-6].

심리적 안녕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며 대인관계를 원만히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뚜렷한 삶의 목적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7]. 이는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청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인기를 포함한 미래 삶의 행복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 시기의 건강할 발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 시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되었다. 그 중에서 애착은 많은 연구들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8-17]. 그런데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성인애착으로 발전하기 때문에[18] 성인기 애착의 이해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을 회상하는 방식보다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애착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19][20]. Hazan과 Shaver[21]는 Bowlby[22]의 애착이론을 토대로 영아기의 애착을 성인의 연인관계에 적용시키면서 성인기 이성 간에 형성된 애착을 낭만적 애착(romantic attachment)이라고 명명하였다. 이것은 안정애착, 불안-양가애착, 회피애착의 3범주[21] 혹은 안정형,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의 4범주[23]의 범주모델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애착유형을 두 가지 차원 즉,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의 차원모델로 설명하는 것이 애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24]. 뿐만 아니라, 차원모델은 범주모델보다 애착을 더 정교화하고 확장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25] 연구자들은 차원모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근거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4-30]. 이에 본 연구에서도 애착유형을 차원모델로 분리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낭만적 애착은 대학생 시기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 보고된 바 있다[31].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안정애착 유형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15] 불안정애착 유형일수록 행복도 및 삶의 만족도는 낮은 반면, 발달의 부정적인 측면과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32]. 즉,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의 수준이 낮은 안정애착유형의 개인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교류를 통해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고[33],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8][34]. 반면,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의 수준이 높은 불안정애착유형의 개인은 타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로 인하여 삶의 의미가 감소되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진다[34]. 또한, 이들은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인 자동적 사고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낮았다 [10]. 이처럼 낭만적 애착은 심리사회적 안녕 및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4][35].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애착이란 쉽게 수정될 수 없는 일종의 성격 변인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안하면서[10][13][36][37], 낭

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매개변인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동안 탐색된 매개변인은 크게 인지적 측면인 부정적 사고 및 긍정적 사고[10], 자아탄력성[36]과 정서적 측면인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 양가성[8][10], 공감 능력 및 우울[13] 그리고 행동적 측면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10]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낭만적 애착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 및 관점에서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발달은 각 단계들마다 발달 및 상황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반드시 중요하게 탐색되어야 할 요인으로 '연인관계 유능성(romantic competence)'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외에서는 이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연인관계 유능성이란 연인과의 관계경험을 통해 사려 깊고 통찰력 있게 사고할 수 있고, 자신 및 연인을 존중하며, 연인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자신을 성공적으로 조절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8]. 사랑이란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감정의 놀이가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고 사랑을 위한 노력과 재주[39][40], 즉 연인관계 유능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인관계 유능성을 특히 대학생 시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낭만적 사랑을 꿈꿀 것이다[41].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청소년 시기의 이성교제가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편이라 학업에 매진하며 절제해왔던 이성 및 낭만적 사랑에 대한 열망은 대학진학 후 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14년 20대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조사에서도 '20대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에 '취업'보다 '연애'가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42]. 둘째, 대학생 시기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대신 연인이 사회적 지지와 친밀감의 원천이 된다[20]. 또한 이전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교제기간을 통해 연인과 보다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한다. 진지하고 건강한 이성교제는 자아정체감 탐색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43-45], 훗날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탐색하는 기회가 된다. 이처럼 대학 진학 후, 많은 대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이성교제를 활발히 하고, 낭만적 사랑에 대한 양상이 달라지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성교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능적인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낭만적 사랑을 나누는 이성관계는 매우 복잡 미묘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복합적으로 느끼며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연인을 통해 친밀감을 경험하고 원만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그 어떤 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46].

한편, 선행연구들은 낭만적 애착이 연인관계의 질 및 연인관계 유능성에 밀접한 관련성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47][48]. 예를 들어, 불안차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연인관계를 형성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49-52]. 이들은 연인의 사랑을 의심하고 연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연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지나칠 정도로 연인과 가까워지길 바란다[21][53][54]. 또한, 갈등상황에서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55] 쉽게 이성을 잃으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심하게 화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56]. 그리고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하고, 연인과 친밀해지고 연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거부한다[57]. 이들은 연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인관계에 몰입하지 않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꺼려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54][56][58]. 또한, 갈등상황에서는 불안차원의 수준이 높은 개인과 비슷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보다 적게 한다. 즉, 상대를 비난하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대신 냉담하고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59]. 반면,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수준이 모두 낮은 안정애착 유형의 개인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연인과 친밀하고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연인관계를 신뢰

하며, 상호의존적이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로 인식한다[21]. 그로 인하여 연인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잘 적응한다[60][61]. 이러한 결과들은 낭만적 애착이 연인관계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인으로서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특성 및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연인관계의 질 및 연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 시기에 연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과 분노와 같은 정서적 문제가 적고[62],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35]. 연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서적 안녕감을 높여주었는데, 특히 연인의 지지는 심리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63], 커다란 정서적 만족감을 주었다[64]. 또한, 연인과의 원만한 관계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65][66][58]. 즉, 대학생들은 연인과 서로 지지해주고 갈등이 적으며 서로에게 충실히 사랑 할수록 더욱 행복하다고 느꼈다[67-69].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원만하고 긍정적인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정신 및 신체건강뿐 아니라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술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낭만적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다. 또한 낭만적 애착은 연인관계 유능성 및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특성과 관련성이 높으며, 연인관계 유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 유능성을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이어주는 구체적인 기제로 가정하여,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저의 변화과정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중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개입할 변인을 이해하여 심리정서적 갈등과 위기를 예방하고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과 연인관계 유능성이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재한 대학교의 대학생 206명이다. 연구대상 대학생은 지금까지 이성교제를 최소 1번 이상 경험한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자신의 연애키행을 토대로 실제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학생(58.7%)이 남학생(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2학년(42.2%)이 가장 많았고, 1학년(24.3%), 4학년(17.5%), 3학년(16.0%) 순이었으며, 응답 당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40.8%)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59.2%)가 더 많았다.

2. 측정도구

1) 낭만적 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9]이 개발한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s-Revised(ECR-R)를 김성현[7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2요인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였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애착을 의미하는 반면, 각 차원의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7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불안차원 .89, 회피차원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차원 .90, 회

피차원 .92로 나타났다.

2)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미[71]가 개발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효능감, 관계유지행동, 갈등관리행동, 불안감해소의 4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고(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미[7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7~.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2~.88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72]등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요인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소 등[7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66~.7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0~.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연예경험이 0회인 경우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정도이었다.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206명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인관계 유능성이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73]가 제시한 매개분석 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 검증의 추가분석인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74] 공식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206)

변인		M(SD)
낭만적 애착	불안차원	2.54(.83)
	회피차원	2.23(.78)
	전체	2.39(.56)
연인 관계 유능성	관계효능감	3.82(.35)
	관계유지행동	3.97(.33)
	갈등관리행동	3.76(.32)
	불안감해소	3.58(.29)
	전체	3.80(.44)
심리적 안녕감	자아수용	3.95(.49)
	대인관계	3.95(.45)
	자율성	4.46(.41)
	환경에 대한 지배력	3.95(.41)
	삶의 목적	4.31(.44)
	개인적 성장	4.14(.34)
	전체	4.12(.63)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낭만적 애착 전체는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r=-.42, p<.01$), 연

표 2.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낭만적 애착	1. 불안 차원	1													
	2. 회피 차원	.49**	1												
	3. 전체	.87**	.86**	1											
연인관계 유능성	4. 관계 효능감	-.43**	-.67**	-.59**	1										
	5. 관계 유지 행동	-.16*	-.55**	-.41**	.56**	1									
	6. 갈등 관리 행동	-.18*	-.24*	-.24**	.27*	.42**	1								
	7. 불안감 해소	-.45**	-.64**	-.63**	.43**	.61**	.39**	1							
	8. 전체	-.37**	-.69**	-.61**	.76**	.85**	.67**	.78**	1						
심리적 안녕감	9. 자아수용	-.24**	-.26**	-.29**	.28**	.09	.04	.17*	.19**	1					
	10. 대인관계	-.33**	-.39**	-.41**	.42**	.25**	.15*	.38**	.39**	.48**	1				
	11. 자율성	-.24**	-.32**	-.32**	.41**	.21**	.17*	.23**	.34**	.35**	.26**	1			
	12. 환경에 대한 지배력	-.24**	-.30**	-.31**	.32**	.20**	.17*	.25**	.31**	.67**	.51**	.41**	1		
	13. 삶의목적	-.20**	-.31**	-.30**	.35**	.22**	.18*	.27**	.33**	.59**	.50**	.48**	.67**	1	
	14. 개인적 성장	-.20**	-.27**	-.27**	.34**	.17*	.26**	.25**	.33**	.52**	.53**	.42**	.47**	.68**	1
	15. 전체	-.32**	-.40**	-.42**	.46**	.25**	.20**	.33**	.41**	.80**	.72**	.63**	.82**	.85**	.77**

* $p < .05$. ** $p < .01$.

인관계 유능성 전체는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41, p<.01$). 또한, 낭만적 애착 전체는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1, p<.01$). 또한,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면,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은 $-.20\sim-.39$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낭만적 애착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도 $-.16\sim-.67$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연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간의 관련성은 관계유지 행동 및 갈등관리행동과 자아수용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15\sim.4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2.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73]의 모델에 따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낭만적 애착이 매개변수인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낭만적 애착이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낭만적 애착과 매개변수인 연인관계 유능성을 함께 독립변수로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해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1)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낭만적 애착이 매개변수인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61, p<.001$)과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4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낭만적 애착과 연인관계 유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beta=-.42\rightarrow\beta=-.26$)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Sobel[74]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04, p<.01$). 이러한 결과는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N=206)

매개효과검증단계	β	adj R^2	F
낭만적 애착→연인관계 유능성	-.61***	.37	118.83***
낭만적 애착→심리적 안녕감	-.42***	.17	42.38***
낭만적 애착→심리적 안녕감	-.26**	.20	27.16***
연인관계 유능성→심리적 안녕감	.25**		

** $p<.01$ *** $p<.001$

2)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1) 불안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 중 불안차원이 매개변수인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37, p<.001$)과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3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불안차원과 연인관계 유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불안차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beta=-.32 \rightarrow \beta=-.19$)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불안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Sobel[74]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76, p<.001$). 이러한 결과는 불안차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불안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N=206)

매개효과검증단계	β	adj R^2	F
불안차원→연인관계 유능성	-.37***	.13	32.45***
불안차원→심리적 안녕감	-.32***	.10	22.72***
불안차원→심리적 안녕감	-.19**	.19	25.17***
연인관계 유능성→심리적 안녕감	.34***		

** $p<.01$ *** $p<.001$

(2) 회피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 중 회피차원이 매개변수인 연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beta=-.69, p<.001$)과 종속변수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beta=-.4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회피차원과 연인관계 유능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회피차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beta=-.40 \rightarrow \beta=-.23$)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회피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Sobel[74]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86, p<.01$). 이러한 결과는 회피차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회피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N=206)

매개효과검증단계	β	adj R^2	F
회피차원→연인관계 유능성	-.69***	.47	180.35***
회피차원→심리적 안녕감	-.40***	.16	39.19***
회피차원→심리적 안녕감	-.23**	.19	24.57***
연인관계 유능성→심리적 안녕감	.25**		

** $p<.01$ *** $p<.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연인관계 유능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연인관계 유능성이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의 의미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심리적 안녕감, 연인관계 유능성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낭만적 애착은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측정된 것으로 불안 및 회피차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을 안정애착 유형으로 간주한다. 먼저, 낭만적 애착이 안정애착 유형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박인숙과 김은하[75]의 연구와 채영문과곽수진[13]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La Guardia와 동료들[15]의 연구에서 안정애착 유형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Wei와 동료들[32]의 연구에서 불안정애착 유형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결과, Carr과 동료들[14]의 연구에서 불안차원이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안녕감과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는 결과, 그리고 Yen[34]의 불안정애착 유형의 개인은 환경과의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삶의 의미를 달성하기 어렵고 그로인하여 안녕감도 낮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애착유형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인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수준이 낮은 안정애착 유형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낭만적 애착이 안정애착 유형일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성정아와 홍혜영[76]의 연구에서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거부감으로 친밀감 형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불안이 증가한다는 결과, 김남희[77]의 연구에서 불안차원 및 회피차원이 높을수록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결과, Meyer와 동료들[78]의 연구에서 불안차원 및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연인 간에 의견 충돌이 빈번하고 관계만족도가 낮았으며 서로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불안정애착 유형은 연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므로 안정애착 유형일수록 연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Davila와 동료들[62]의 연구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높고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정후들이 낮아 관계 및 개인의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Braithwaite와 동료들[66]의 연구에서 연인관계의 질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 및 문제행동 감소 등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연인관계에서 자신과 연인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상호성을 추구하며 정서적 조절에 능통할 수 있는 유능성 수준이 높다면 심리적 적응 및 안녕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은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인 불안 및 회피차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는 두 차원 모두에서 나타났고, 두 차원 간의 매개효과 크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특성이 연인관계에서 다소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두 차원의 기저는 공통적으로 불안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관계기술 능력을 갖춘다면 이러한 부정적 특성들이 보완될 수 있어 매개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낭만적 애착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8][10][14][35][15][33][34], 낭만적 애착은 연인관계 유능성 및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21][48-57][60][61], 그리고 연인관계 유능성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35][58][62][63][65-69]을 통해 연인관계 유능성을 매개로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인 추론으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한 것으로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연인관계 유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umar와 Mattanah[35]의 연구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연인관계 유능성과 연인관계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오지혜와 윤혜미[79]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개한 연구와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연인관계 유능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낭만적 애착의 경로와 특성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밀한 타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정서적으로 안정애착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생 시기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인 기술적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일종의 관계기술로서 노력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탐색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및 연령, 신분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이 낭만적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아닌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연인관계 유능성이 불안정한 낭만적 애착 유형의 개인에게서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보이지만, 심리적 안녕감을 완전히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것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낭만적 애착과 연인관계 유능성의 경로를 확인한 것일 뿐, 명

확한 인과관계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낭만적 애착과 연인관계 유능성 외에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동시에 고려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조기형, 이상역,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이담북스, 2011.
- [2] 김경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3] 박영신, 김의철,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 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3호, pp.399-429, 2009.
- [4] 박선영, “대학생들의 자기관리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 서울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pp.71-92, 2005.
- [5] 박현숙, 구현영, 원수희, “여성의 성기능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13권, 제4호, pp.505-512, 2004.
- [6] 차경호,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1호, pp.113-143, 1995.
- [7]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1081, 1989.
- [8] 김용희,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9호, pp.231-256, 2012.
- [9] 김정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197-224, 2008.
- [10] 김정문,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1] 염정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 반추, 정서억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12] 장미애, 양난미, “대학생의 애착회피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2호, pp.273-292, 2015.
- [13] 채영문, 곽수진, “대학생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6호, pp.599-613, 2013.
- [14] S. Carr, K. Colthurst, M. Coyle, and D. Elliott, “Attachment dimensions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well-being in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Vol.28, pp.157-172, 2013.
- [15] J. G. La Guardia, R. M. Ryan, C. E. Couchman, and E. L. Deci,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9, No.3, pp.367-374, 2000.
- [16] B. Mansour, H. Rasoul, M. Vahhab, G. Mojtaba, H. Hosein Ostad, and M. Mahdi, “Happiness and Willingness to Communicate in Three Attachment Styles: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46, pp.294-298, 2012.
- [17] A. Karrenman and A.J.M. Vingerhoets, “Attachment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and resili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3, No.7, pp.821-826, 2012.
- [18] B. Mallinckrodt,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logy Research*, Vol.10, pp.239-266, 2000.
- [19] W. L. Cook,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No.2, pp.285-294, 2000.
- [20] G. Overbeek, W. Vollebergh, R. C. M. E. Engels, and W. Meeus,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0, No.1, pp.28-39, 2003.
- [21] C. Hazan and P. Shaver,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511-524, 1987.
- [22] J.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39, 35, 1958.
- [23]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p.226-244, 1991.
- [24] K. A. Brennan, C. L. Clark, and P. R. Shave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25] R. C. Fraley, N. G. Waller, and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pp.350-365, 2000.
- [26] 이시연, 박성연, 지연경,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과 부모의 초기 애착과의 관계에서 분리-개별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9호, pp.101-122, 2014.
- [27] 이유리, 정주리, “대학생의 애착불안이 대인관계 및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2호, pp.261-281, 2017.
- [28] 진미경,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대인관계문제 및 이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85-300, 2013.
- [29] R. C. Fraley, N. G. Waller, and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8, pp.350-365, 2000.
- [30] J. A. Simpson and W. S. Rholes,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Stress, and Romantic*

- Relationships, In Patricia Devine, Ashby Plant(Eds.),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pp.279-328), Burlington: Academic Press, Elsevier Inc, 2012.
- [31] F. G. Lopez, P. Mitchell and B. Gormley,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s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9, pp.460-467, 2002.
- [32] M. Wei, K. Y. H. Liao, and P. A. Shaffer, "Attachment, self-compassion, empath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and community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Vol.79, No.1, pp.191-221, 2011.
- [33] J. H. Lin, "Need for relatedness: a self-determination approach to examining attachment styles, Facebook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26, No.2, pp.153-173, 2016.
- [34] C. L. Yen, "Why are people with insecure attachments unhappy? The mediation of meaning in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49, No.5, pp.404-408, 2014.
- [35] S. A. Kumar and J. F. Mattanah, "Parental attachment, romantic competence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Personal Relationships*, Vol.23, pp.801-817, 2016.
- [36] 김현주, 함경애, 천성문, 주동문, "중학교 교사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술지명 삽입*, 제29권, 제4호, pp.445-466, 2012.
- [37] 조화진, 서영석,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2호, pp.385-411, 2010.
- [38] J. Davila, S. J. Steinberg, M. R. Miller, C. B. Stroud, L. R. Starr, and A. Yoneda, "Assessing romantic competence in adolescence: The Romantic Competence Interview,"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pp.55-75, 2009.
- [39] 김중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40] E. Fromm, *The art of loving*, NY: Harper & Row, 1956.
- [41] 권석만, *인생의 2막 대학생생활*, 학지사, 2013.
- [42] 한국일보, '말 못할 젊은이들의 연애 부담 스트레스... 다른 나라에선?', 12. 19. 2017.
- [43] E. H. Eric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68.
- [44] A. Eryilmaz and T. Dogan, "The mediator role of need satisfaction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Egitim Arastirmalari-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53, pp.79-96, 2013.
- [45] S. Shulman and J. Connolly, "The challeng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Reconceptualization of the field," *Emerging Adulthood*, Vol.1, pp.27-39, 2013.
- [46] M. L. Kan and A. C. Cares, From "friend with benefits" to "going steady": New directions in understanding romance and sex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In A. C. Crouter & A. Booth(Eds.), *Romance and sex in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Risk and opportunities*(pp.241-258), Mahwah, NJ: Erlbaum, 2006.
- [47] N. L. Collins and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4, pp.644-663, 1990.
- [48] C. Strauss, M. M. Morry, and M. Kito., "Attachment styles and relationship quality: Actual, perceived, and ideal partner matchin," *Personal Relationships*, Vol.19, pp.14-36, 2012.
- [49] 강진경,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50]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성인 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12호, pp.31-42, 2006.
- [51] 장재홍,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애착 차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1호, pp.137-155, 2006.
- [52] 홍성례,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제25권, 제1호, pp.169-182, 2007.
- [53] M. Mikulincer, P. R. Shaver, and D. Pereg,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Vol.27, pp.77-102, 2003.
- [54] P. R. Shaver and M. Mikulincer,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Resurrection of the psychodynamic approach to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39, pp.22-45, 2005.
- [55] B. W. Hadden, C. V. Smith, and G. D. Webster, “Relationship duration moderates associ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relationship quality: Meta-analytic support for the temporal adult romantic attachment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18, No.1, pp.42-58, 2014.
- [56] M. B. Levy and K. E. Davis, “Lovestyles and assessment of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 pp.755-773, 1988.
- [57] R. L. Paetzold, W. S. Rholes, and J. L. Kohn, “Disorganized attachment in adulthood: Theory,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romantic relationship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19, No.2, pp.146-156, 2015.
- [58] C. Hendrick and S. S. Hendrick,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6, pp.784-794, 1989.
- [59] N. L. Collin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1, pp.810-832, 1996.
- [60] L. Kirkpatrick and K. Davis,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6, pp.502-512, 1994.
- [61] J. A. Simpson,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971-980, 1990.
- [62] J. Davila, J. Mattanah, V. Bhatia, J. A. Latack, B. A. Feinstein, N. R. Eaton, J. S. Daks, S. A. Kumar, E. F. Lomash, M. McCormick, and J. Zhou, “Romantic competence, healthy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in emerging adults,” *Personal Relationships*, Vol.24, pp.162-184, 2017.
- [63] R. W. Simon and A. E. Barrett, “Nonmarital romantic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ulthood: Does the association differ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51, pp.168-182, 2010.
- [64] C. Dunca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over and major issues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Vol.136, No.1, pp.75-81, 2005.
- [65] E. Berscheid, “The greeting of relationship science,” *American Psychology*, Vol.54, pp.260-266, 1999.
- [66] S. R. Braithwaite, R. Delevi, and F. D. Fincham,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Relationships*, Vol.17, No.1, pp.1-12, 2010.
- [67] M. Demir, “Sweetheart, you really me happy: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happines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9, pp.257-277, 2008.
- [68] M. Demir, “Close relationships and happines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1, pp.293-313, 2010.
- [69] K. J. Prager, *The psychology of intimac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5.
- [70] 김성현,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71] 김경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72]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pp.19-39, 2001.
- [7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74]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pp.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2.
- [75] 박인숙, 김은하,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0권, 제1호, pp.173-193, 2018.
- [76] 성정아, 홍혜영,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6권, 제2호, pp.387-412, 2014.
- [77] 김남희, *불안정 성인애착과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78] D. D. Meyer, M. Jones, A. Rorer, and K. Maxwell, “Examining the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affective state,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Vol.23, No.1, pp.18-25, 2015.
- [79] 오지혜, 윤혜미,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1-12, 2017.

저 자 소 개

김 경 미(Kyoung-Mi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 청년발달, 아동발달, 보육, 부모교육